

# 모든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 마이클 칼스텐, OFS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발췌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와 함께 프란치스칸 가족은 프란치스코 형제와 이루미나토 형제의 말렉 말 카밀 술탄과의 만남 800 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노력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비그리스도교인과의 활발한 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 선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1. 우리 시대에, 인류가 날로 더욱 긴밀히 결합되고 여러 민족들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비그리스도교들에 대한 관계를 더욱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일치와 사랑을 촉진할 사명을 지닌 교회는 여기에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 공통의 문제와 상호 협력 증진에 관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마침내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도성에 뽑힌 이들이 모일 것이며, 거기에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빛 속에서 거닐 것이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마음을 변민하게 하는 인생의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 종교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뒤의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궁극의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 예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민족들은 사물의 변천과 인생사에 들어 있는 심오한 힘을 어느 정도 인식해 왔다. 때로는 최고의 신이나 아버지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인식과 긍정은 그들의 생활에 깊은 종교적 의미를 불어넣는다. 종교는 문화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개념과 고상한 언어로 이러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애써 왔다. 예컨대 힌두교에서는 사람들이 신의 비밀을 찾아 풍부한 신화와 뛰어난 철학적 탐구로써 그 신비를 표현하며, 금욕 생활이나 깊은 명상을 통하여 또는 사랑과 신뢰로써 신에게 귀의하여 인생고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불교에서는 여러 종파에 따라 이 무상한 세계의 근본적 불완전성을 긍정하고, 신심과 확신으로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이나 위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 그 밖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들도 교리와 생활 규범과 신성한 예식 등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 길을 가르친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또 끊임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 14,6)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종교 생활을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당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종교의 신봉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는 한편,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모든 자녀에게 권고한다.

3.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 신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에 적지 않은 불목과 적대가 있었지만, 거룩한 공의회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서로 이해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며 온 인류를 위하여 사회 정의와 도덕 가치, 평화와 자유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증진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권고한다.

4.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신약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정신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유대를 기억한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이미 성조들과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교회의 신앙과 선택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신앙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조와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선택된 백성이 종살이하던 땅에서 탈출한 사실도 교회의 구원을 신비롭게 예표한 것이라고 교회는 공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옛 계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통하여 구약의 계시를 이어받았고,..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고 당신 안에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교회는 믿고 있다.

교회는 바오로 사도의 동족에 관한 말씀도 언제나 되새기고 있다. “나의 동족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로마 9,4-5 참조).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토대이며 기

동인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초기 제자들 대부분이 유다 백성에게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있다...

5.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형제로 대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와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1 요한 4,8).

그러므로 인간 존엄과 거기서 연유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차별을 초래하는 온갖 이론과 실천의 기반은 무너지고 만다.

인종이나 피부색, 신분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온갖 인간 차별과 박해는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교회는 이를 배척한다. 따라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교인들 가운데에 살면서 바르게 처신”(1 베드 2,12)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닿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냄으로써,14)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교회의 말씀입니다.